

##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i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its Effect on Media Device Addiction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9차(2016년), 10차(2017)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잠재계층 성장분석,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 중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무변화, 이차곡선변화의 형태보다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 궤적은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동안 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ypes of longitudinal changes in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4-year-old children in primary school as well as the effects on media device addiction. To explore interaction type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LCGM) and BCH were used in a three-step approach. Data from the 6-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were used. First, the trajectory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was linear and decreased across time. This linear decrease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trajectories: high-decreasing, average-decreasing, and low-decreasing. Second, BCH was performed to examine media device addiction in each trajectory, and the findings show that children who had low initial mother-child interactions over tim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aily disturbances in adaptive functions such as withdraw or tolerance than other groups of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ximizing the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s in childhood through primary school can lower media device addiction in children.

**Keywords** : Mother-Child Interaction, Media Device Addictio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Withdrawal, Toleranc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July 6,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July 27,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양육 특성이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가족 요인 중 하나이며[1], 책 읽어주기, 이야기하기, 함께 노래 부르기 및 게임 하기 등의 가정에서 공유하는 활동이 포함된다[2].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학습준비도, 친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3-5], 여전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 패턴을 확인한 일부 연구 또한[6] 평균적인 단일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집단 내 존재할 수 있는 다수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7], 종단적 관점에서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초기 아동기에 특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8]. 애착 안정성은 자녀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애착 안정성의 기저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9 재인용]. 애착이론 및 사회화학습이론 관점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신, 관계 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킨다[8]. 건강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10]. 이에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 또래관계갈등이 더 적게 나타나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11].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와 국외 연구 모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 분석 결과,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12].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동 4명 중 1명꼴로 미디어중독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미디어 기기 사용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초등학생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 기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는 중요하다. 미디어 기기 중독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공격성,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가해행동, 수면의 질 등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8].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사용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중의 하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부모-자녀관계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지각, 정서, 사고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내적 작동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20 재인용].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와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모두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특히, 어머니의 허용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미디어중독사용자 발생의 확률을 증가시켰다[14].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이며[22], 부모 돌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심리적 특성인 주관적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23-24].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교(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유아기와 초등학교(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 2) 확인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초3 시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9차(2016년), 10차(2017)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상호작용의 4개 시점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응답한 사례, 미디어 기기 중독에 응답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74명이 포함되었다.

### 2.2 연구 도구

#### 2.2.1 모-자녀 상호작용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9차(2016년)의 4개 시점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지난 일주일동안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는 정도를 ‘(1점) 전혀 하지 않음, (2점) 1~2번, (3점) 3~6번, (4점) 매일함’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차  $\alpha=.84$ , 7차  $\alpha=.83$ , 8차  $\alpha=.83$ , 9차  $\alpha=.82$ 이다.

#### 2.2.2 미디어 기기 중독

초등학생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0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장애(5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금단 1문항(‘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내성 1문항(‘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을 제거한 후 각 3문항으로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일상생활장애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금단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내성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일상생활장애  $\alpha=.74$ , 금단  $\alpha=.70$ , 내성  $\alpha=.62$ 이다.

### 2.3 분석 방법

4시점 동안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모-자녀 상호작용의 잠재계층에 따른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검증을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사용하였다[25].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6차(2013년) 자료, 자녀에 대한 정보는 10차(2017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34명(2.5%), 30대 1,103명(80.3%), 40대 207명(15.1%), 50대 5명(.4%), 무응답 25명(1.8%)이며, 최종학력은 중졸 5명(.4%), 고졸 379명(27.6%), 전문대졸 376명(27.4%), 대졸 515명(37.5%), 대학원졸 70명(5.1%), 무응답 29명(2.1%)이다. 자녀의 월령은 110개월 72명(5.2%), 111개월 234명(17.0%), 112개월 367명(26.7%), 113개월 364명(26.5%), 114개월 210명(15.3%), 115개월 61명(4.4%), 116개월 29명(2.1%), 117개월 14명(1.0%), 무응답 23명(1.7%)이며, 성별은 남아 693명(50.4%), 여아 681명(49.6%)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4-29	34	2.5
	30-39	1,103	80.3
	40-49	207	15.1
	50-53	5	.4
	No response	25	1.8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5	.4
	High school graduated	379	27.6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76	27.4
	University graduated	515	37.5
	Graduate school graduated	70	5.1
Child's age (months)	No response	29	2.1
	110	72	5.2
	111	234	17.0
	112	367	26.7
	113	364	26.5
	114	210	15.3
	115	61	4.4
116	29	2.1	
Child's gender	117	14	1.0
	No response	23	1.7
	Male	693	50.4
	Female	681	49.6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chi^2$	df	CFI	TLI	RMSEA(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501.510***	8	.764	.823	.212(.196-.228)	.139	2.175***		
Linear	19.107**	5	.993	.992	.045(.025-.068)	.028	2.312***	-.087***	
Quadratic	7.984**	1	.997	.980	.071(.032-.121)	.013	2.300***	-.051***	-.011**

\* p<.05, \*\* p<.01, \*\*\* p<.001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2	6160.950	6207.979	6179.390	.750	.0000	.0000	.0000	36.0	64.0						
3	5623.150	5685.855	5647.736	.790	.0000	.0000	.0000	8.7	42.7	48.6					
4	5495.960	5574.342	5526.693	.718	.2451	.0000	.0000	24.9	4.4	45.0	25.8				
5	5417.926	5511.985	5454.806	.739	.0123	.0000	.0000	15.4	8.2	41.4	.8	34.3			
6	5400.508	5510.243	5443.534	.755	.2503	.0000	.0000	15.4	.8	6.0	41.3	34.4	2.0		

### 3.2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

먼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에 대한 최적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변화모형과 이차곡선변화모형은 CFI, TLI 값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RMSEA 값이 선형변화모형이 더 좋기 때문에,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형변화모형을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위한 기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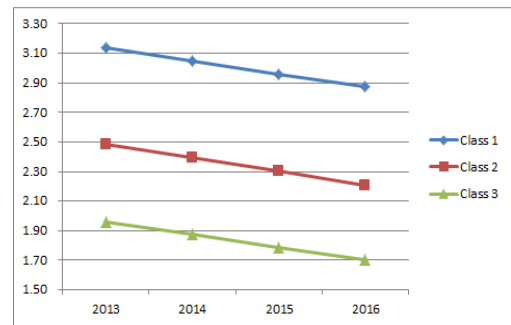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최적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 6개인 모형까지 비교하였으며(Table 3 참조), 모형 적합도, 잠재계층 분류율,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은 .89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에 따른 3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8.7%인 119명이 포함된 첫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134(p<.001), 선형변화율 -.088(p<.001)이며, '상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8.6%인 668명이 포함된 두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2.482(p<.001), 선형변화율 -.091(p<.001)이며, '중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2.7%인 587명이 포함된 세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1.957(p<.001), 선형변화율 -.084(p<.001)이며,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3.134***(.070)	-.088***(.021)
2	2.482***(.025)	-.091***(.007)
3	1.957***(.025)	-.084***(.007)

\* p<.05, \*\* p<.01, \*\*\* p<.001



※ Class 1: high-decreasing Class 2: average-decreasing, Class 3: low-decreasing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 3.3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검증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에 따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적용하였다.

Table 5.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chi^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lass1	119	1.331	.042	33.581*** (1,2<3)
	Class2	668	1.391	.017	
	Class3	587	1.535	.021	
Withdrawal	Class1	119	1.392	.054	23.405*** (1,2<3)
	Class2	668	1.420	.021	
	Class3	587	1.576	.024	
Tolerance	Class1	119	1.341	.048	28.549*** (1,2<3)
	Class2	668	1.348	.019	
	Class3	587	1.511	.023	

※ Class 1: high-decreasing Class 2: average-decreasing, Class 3: low-decreasing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모두에서 잠재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3집단(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1집단(상수준 감소형 집단)과 2집단(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무변화, 이차곡선변화의 형태보다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 궤적은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가장 많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4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8.7%인 119명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중간 수준의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감소형 집

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48.6%인 668명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집단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가장 낮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42.7%인 587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모두 모-자녀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4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정보다 학교 및 학원 등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한 결과일 수 있다[6, 12]. 또한 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모-자녀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수준 감소형 집단(8.7%)보다 중수준 감소형 집단과 저수준 감소형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에 투자하는 시간 및 에너지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및 에너지가 부족하며[26], 이에 모-자녀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

기 및 초등학교 시기의 미디어 이용정도 및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7, 27]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인간의 물질 남용은 부정적인 정서 및 상황에 대한 보상적 자기처방행동인데[28 재인용], 모-자녀 상호작용이 부족할 때 아동은 보상적 자기 처방으로 미디어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 경우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결핍에 대한 보상적 기제로 미디어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을 낮추기 위해 자녀 연령을 고려한 긍정적 모-자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상담, 코칭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교(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을 확인하였는데, 영유아기 시기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출생 시기부터 초등학교까지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자녀 상호작용 또한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과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유아기와 초등학교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궤적에 따라 이질적인 특징이 있는 3개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3개 잠재계층은 유아기와 초등학교(초2까지) 동안 공통적으로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아기와 초등학교 4년 동안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의 자녀가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잠재계층의 자녀보다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점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교(초2까지) 동안 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W. Shan, Y. Zhang, J. Zhao, Y. Zhang, E. F. C. Cheung, R. C. K. Chan, F. Jiang, "Association between maltreatment, positiv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Pediatrics*, Vol.213, pp.180-186, 2019. DOI: <https://doi.org/10.1016/j.jpeds.2019.06.050>
- [2] <http://panel.kicce.re.kr>
- [3] M. H. Min,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ources, parent-child interaction, academic skills, and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5, pp.1-19, 2017.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2-5-01>
- [4] J. A.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young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etic 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etic abi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8, No.4, pp.5-23, 2018. DOI: <http://dx.doi.org/10.18023/kiee.2018.38.4.00>
- [5] M. Kizuki, M. Ochi, A. Isumi, T. Kato, T. Fujiwara, "Parental time of returning home from work and child mental health among first-year primary school students in Japan: Result from A-CHILD study", *Frontiers in Pediatrics*, 6:179, 2018. DOI: <https://doi.org/10.3389/fped.2018.00179>
- [6] W. H. Jang, "The longitudinal effect of maternal perception about marital conflic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on second-graders' school adjustmen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 pp.25-51,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1.25>
- [7] Y. H. Choi, E. H. Ha,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family interactio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device addictio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7, No.2, pp.1-18, 2019. DOI: <https://doi.org/10.35639/daehan.2019.17.2.1>
- [8] H. Chang, D. S. Shaw, E. C. Shelleby, T. J. Dishion, M. N. Wilson,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family check-up on peer preferenc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s sequential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45, No.4, pp.705-717, 2017.

- DOI: <https://doi.org/10.1007/s10802-016-0198-9>
- [9] S. E. Anderson, S. A. Keim, "Parent-child interaction, self-regulation, and obesity prevention in early childhood", *Current Obesity Reports*, Vol.5, No.2, pp.192-200, 2016.  
DOI: <https://doi.org/10.1007/s13679-016-0208-9>
- [10] X. Xie, W. Chen, X. Zhu, D. He, "Parents' phubbing increases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Roles of parent-child attachment, deviant peers, and gen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05, 104426,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9.104426>
- [11] T. Poulain, J. Ludwig, A. Hiemisch, A. Hilbert, W. Kiess, "Media use of mothers, media use of children, and parent-child interaction are related to behavioral difficulties and strengths of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6, No.23, 4651, 2019.  
DOI: <https://doi.org/10.3390/ijerph16234651>
- [12] D. M. Gadaire, C. C. Henrich, M. Finn-Stevenson,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27, No.7, pp.767-778, 2017.  
DOI: <https://doi.org/10.1177/1049731516632592>
- [13] J. S. Choi, N. Y. Choi,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ddiction to digital media in the elementary 3rd graders: Focusing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pragmatic competence, and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3, pp.629-65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3.629>
- [14] J. M. Kim, E. A. Choi,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peer attachment, media usage tim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media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8, No.4, pp.197-225, 2019.  
DOI: <https://doi.org/10.21183/kjcm.2019.12.18.4.197>
- [15] S. C. Shin, "Regulating effects of resilience toward the influence of smart phone toxication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adaptability to school life and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3, No.1, pp.199-214, 2014.
- [16] S. C. Shin, Y. H. Shin, H. W. Song, "Adjustment effect of self-esteem on school maladjustment and stres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7, No.2, pp.85-97, 2018.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8.27.2.05>
- [17] E. B. Kwon, D. H. Lee, "Th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ression, victimization and bully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8, No.1, pp.91-119, 2020.  
DOI: <http://dx.doi.org/10.30916/KERA.58.1.91>
- [18] Y. S. Kim, S. Y. Lee, "A study of leisure sport,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school adapt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Vol.21, No.6, pp.666-682, 2017.  
DOI: <https://doi.org/10.24231/rici.2017.21.6.666>
- [19] K. O. Lee, "Causal longitudinal analysis between media usage time trajectories and school adaptation trajectories for low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2, No.1, pp.105-124, 2020.  
DOI: <https://doi.org/10.36431/JPE.12.1.6>
- [20] G. Floros, K. Siomos,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al parenting, internet addiction and motives for social networking in adolescence", *Psychiatry Research*, Vol.209, pp.529-534, 2013.  
DOI: <http://dx.doi.org/10.1016/j.psychres.2013.01.010>
- [21] H. J. Lee, S. K. Kim, S. M. Cheon,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 to youth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3, No.2, pp.329-348, 2016.
- [22] H. W. Kwon, Y. J. Lim,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use motiv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317-337, 2017.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7.09.24.9.317>
- [23] M. H. Kim, H. S. Kwak,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game addi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5, pp.371-389,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5.371>
- [24] J. Y. A. H. B. Kim, N. H.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self-esteem on smartphone overuse: Self-esteem mediation - A senior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4, pp.211-22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4.211>
- [25]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26] E. M. Yeon, H. S. Choi,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work-family conflict: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4, pp.253-271,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4.253>
- [27] J. E. Lee, J. Y. Kim, E. H. Park, H. A. Kang, "The effect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a child's sleeping hours: The mediation of a child's smart media use",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3, No.6, pp.163-179, 2017.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7.13.06.163>

- [28] J. Sun, Q. Liu, S. Yu, "Child neglect, psychological abus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ro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ping sty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90, pp.74-83,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b.2018.08.032>
-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